

# 현대조경의 추상유형

김준연 · 이행렬 · 방광자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사물의 근본문제에 대한 탐구가 시작하여 사물의 근본이나 원리에 대하여 연구되었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과 사회, 자연에 대하여 탐구하여 왔으나, 현대에 와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에 집중을 하여 대상의 물질적 가치와 피상적 표현, 지각적 현실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순수예술분야가 아닌 조경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연구의 중심이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접근이나 기능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인간의 내적 탐구를 통한 현대조경의 철학적 이해나 미학적 탐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대조경(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은 탈장르적 경향과 건축, 조경, 예술 장르간의 하이브리드화(hybrid)가 이뤄지고(장일영, 2006) 현대조경작품의 형태나 예술성은 과거의 픽처레스크식(picturesque)의 조경이 표현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을 표현해 내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현대의 조경은 한편의 거대한 추상예술을 보는 듯하고, 그 난해함은 정도를 더하고 있어 일반대중들 뿐만 아니라 전문 조경가들조차도 추상적 현대조경에 대한 해석이 부분하고 정확한 이해나 해석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현대조경의 추상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조경, 건축, 미술 등 여러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예술의 창작원리로 작용되어온 '추상성'에 대한 근본적 탐구를 하여 추상에 대한 이론정립, 추상성 변천과정, 추상성의 현대적 의미를 파악하여, 조경학적 시각으로 각 예술분야와의 연계성을 밝히고 현대조경작가와 작품에서 표현되어 나타나는 추상형태, 추상언어, 추상특징을 추출해봄으로써 현대조경의 추상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세부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상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의 기초를 확립하고 예술의 의미와 현대예술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추상의 철학적 사고를 한다.

둘째, 현대예술, 현대건축과의 연계성을 밝히고, 현대 추상예술과 추상건축의 접근을 통해 현대조경의 추상성 분류기준을 확립한다.

셋째, 현대조경의 대표하는 작가와 해당 작가의 작품에 대해 조사를 하고 조사되어진 현대조경작품을 예술비평이론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분석틀에 의해 분석하고 결과를 이끌어낸다.

연구의 방법은 주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조경학, 미학, 철학, 예술학, 건축학, 논리학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고, 현대조경의 추상성 판단기준과 추상성 판단표를 마련하기 위해 펠트만의 비평 4단계를 활용하였다.

에드문트 부르케 펠트만(Edmund Burke Feldman)의 저서 「시각적 경험의 다양성 Varieties of Visual Experience: Art as Image and Idea(1967)」에서 자세히 주장되고 있는 펠트만의 비평 4단계는 기술, 분석, 해석, 평가로 나뉘지는 단계적인 비평양식은 1967년 이후 수많은 교육자들에 의해 채택되어 사용되어졌으며(김정란, 2005), 또한 지금까지 나온 많은 비평양식들의 기본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지연, 2004).

또한, 현대조경작가와 작품의 선정은 피어뤼기 니콜린(Pierluigi Nicolini)과 프란시스코 레피쉬티(Francesco Repishti)가 2003년에 저술한 「현대 조경디자이너 사전, Dictionary of Today's Landscape Designers」에서 구상작가를 제외한 총 71명의 추상작가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작가들 중 각 추상유형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작가 및 작품연구를 위해서 작가가 직접 저술한 문헌이나 작가나 작가가 소속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참고하였다.

## II. 추상

### 1. 추상(抽象, abstract)의 개념

추상(抽象, abstract)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오광수, 1994)로 통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추상의 추(抽)는 앞의 추상의 정의에서 언급하였듯이 뽑아내거나 추출한다는 의미로서 이미 단어 자체에서 '동사'로서의 뽑아낸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귀납적 추론을 내포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명사'로서의 추상으로 우리가 '추상적이다'라는 말을 가끔 사용하는 데, 이때 추상이 통용되는 의미는 바로 '잘 모르겠다, 애매모호하다'라

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추상은 근본적으로 형태를 뽑아내는 단순화가 그 출발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의 라스코 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사물의 단순화 시키는 작업에서 초기 추상의 소박한 형태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상은 모방(미메시스, Mimesis)<sup>1)</sup> 개념과도 무관할 수 없다(H. Koller, 1954). 왜냐하면 추상이지만 모방개념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미리 말하자면 전자는 귀납적 추상이고, 후자는 연역적 추상으로 구분한다(노영덕, 2004)<sup>2)</sup>.

첫째는 대상의 모방과 재현을 통한 예술로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전통적 예술방법으로 원상에 대한 미메시스(Mimesis, 재현 또는 모방)(오병남, 2003)를 통한 예술적 표현을 말하며, 귀납적 추상으로 회화에서는 지적, 논리적 차가운 추상을 일컫는다.

둘째는 연역적 추상인 표현주의적 뜨거운 추상으로 추상의 방법이 전통적 방법과는 크게 차이가 남으로 과거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는 현대예술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현대예술에서는 재현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원상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관념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으며, 원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재현이나 모방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어떤, 무엇의 방법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은 플로티노스의 철학이론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고대의 철학자인 플라톤(Platon)이 현상의 세계와 이념의 세계로 구분하여 모든 예술은 완전한 세계인 '이데아(idea)'를 모방하였기에 저급한 것으로 취급한 것과는 달리, 후대의 철학자인 플로티노스(Plotinos)는 '일자(一者, the One)'의 테오리아(미적 직관, theoria)를 통해 인간의 영혼이 정화되고 상승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표현주의적 추상예술의 근원으로 예술의 존재론적 지위를 플라톤의 '침상의 비유'와는 전혀 다르게 부여하였다. 미술사학자인 라코스트(Michel Conil Lacoste)에 의하면, "칸딘스키는 자연과 미술을 동등하게 만들었다. 예술과 자연의 창조과정은 똑같다. 그는 예술과 자연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고 두 작품은 동시에 개화되고 독립적으로 살아 있는 개체라고 주장하였다"(Michel Conil Lacoste, 1979).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플로티노스의 '유출설'에 의해 인간에 의한 예술적 지위가 상승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이 자연을 창조한 것과 동일한 지위로서 칸딘스키의 예술에 의해 인간의 예술적 지위가 인정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칸딘스키 자신도 그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의 저서인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Über das Geistige in der Kunst)」에 따르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상의 재현을 포기하고 순수 추상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였고, "예술가의 눈은 자신의 내적 삶의 방향으로 돌려져야 하며, 귀는 내적 필연성의 언어에 향해 있어야 한다"(W. Kandinsky, 1973)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인간의 사고에서 출발한 추상은 자연의 단순한 묘사,

즉 원상에 대한 단순한 모방(미메시스, Mimesis)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관념과 사고가 더해지면서 오늘날의 현대적 의미의 추상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단순히 작품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원상의 모방인지 아닌지로 추상을 구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모방을 통해 예술활동을 하여 모상이 탄생하였다고 하여도 원상의 모습과 모상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를 경우, 작가가 아닌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원상과 모상의 양자간의 유사성의 인식유무에 따라 이를 비모방으로 볼 수도 있으며, 구체적 대상이 없이 작가의 관념적인 것을 그렸다 해도 원상의 역할을 한 그 관념에 의해 일종의 이미지를 통한 모방예술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II. 현대조경의 추상유형

현대조경의 추상유형을 피어뤼기 니콜린(Pierluigi Nicolini)과 프란시스코 레피쉬티(Francesco Repishti)가 2003년에 저술한 「현대 조경디자이너 사전, Dictionary of Today's Landscape Designers」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대상이 되었던 작가 총 85명 중에서 구상작가를 제외한 총 71명의 추상조경작가를 대상으로 추상성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표되는 작가를 각각의 유형별로 1명씩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1. 연역적 추상조경

순수한 연역적 추상성만을 지닌다. 대표작가로는 네덜란드 국적의 페트라 블라이제(Petra Blaisse, 1955)가 있다. 그녀는 1991년 Inside Outside라는 사무실을 개설하여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융합시키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작품의 목표를 안과 밖의 연계와 건축과 조경의 조화로 여겼다. 또한, 색채와 형태의 놀라운 조화와 특별한 소재로 열정을 나타내는 공간을 디자인한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렘콜하스와 공동 작업을 하며, 서울에서도 리움미술관과 서울대학교 현대미술관의 조경에 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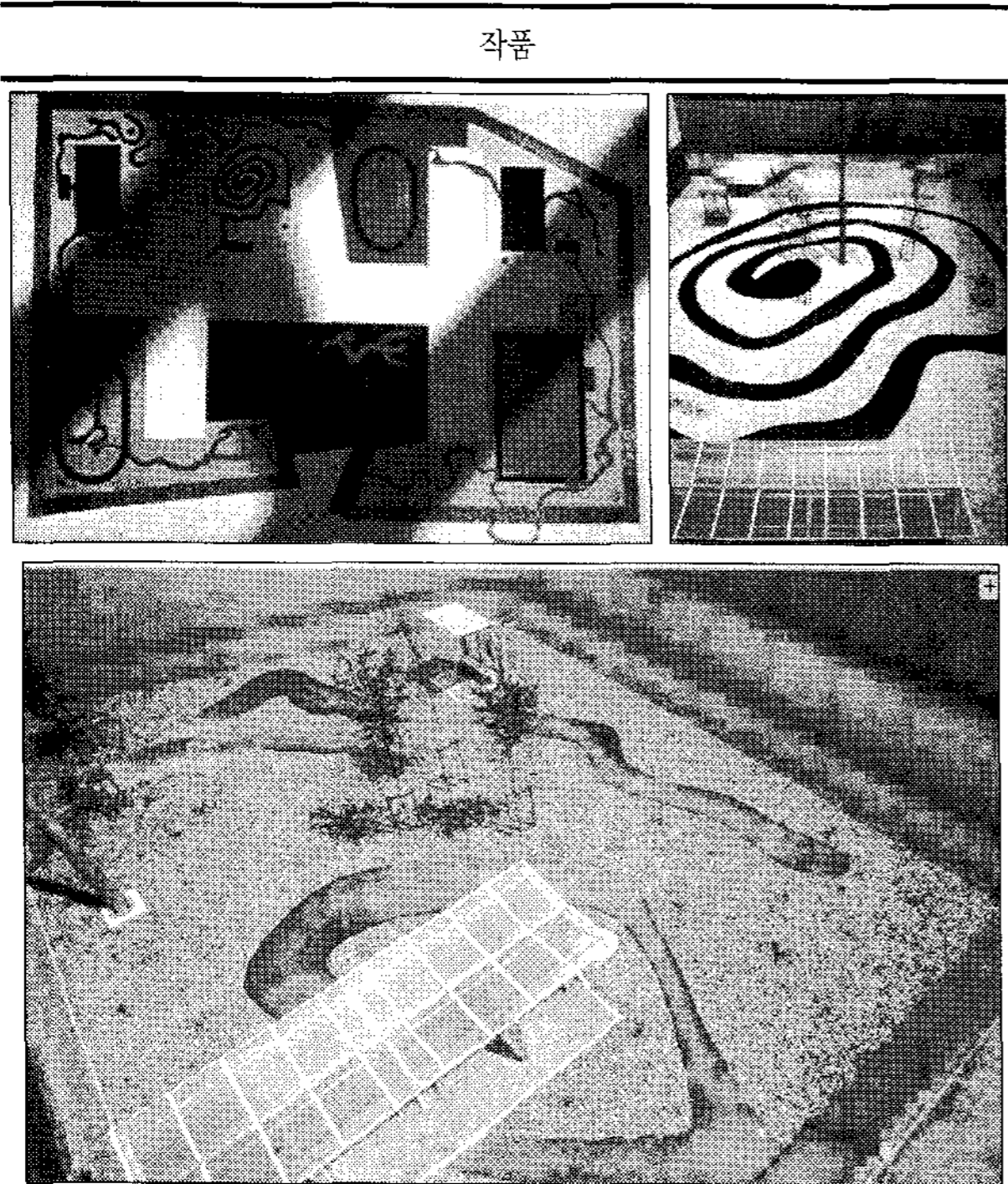
#### 2. 귀납적 추상조경

앞의 연역적 추상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논리적, 이성적 추상조경의 유형이다. 대표작가로는 인도 국적의 찰스 코레아(Charles Correa, 1930)이다. 그는 건축가이며 도시계획가이지만, 오히려 독특한 개성을 지닌 현대조경가로 더욱 알려져 있다. 자와할 칼라 켄드라(Jawahar Kala Kendra)와 펀(Pune) 대학캠퍼스는 모더니즘적 인도의 전통의 힘찬 기념성을 잘 섞어서 성공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 3. 복합적 추상조경

복합적 추상조경은 연역적 추상의 성격과 귀납적 추상의 성

표 1. 페트라 블래제 추상작품



1991, State Detention Center, Netherlands

|       |   |
|-------|---|
| 작품해설  | 총 6개의 정원을 디자인하였다. 감옥이라는 장소의 성격상 엄격한 분위기를 완화하고자 자유곡선을 사용하여 친근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
| 구분    | 내용  |
| 1단계   | 추상작품  |
| 2단계   | 극도의 추상적 주제 표현, 비대칭적이고 실험적 형태 시도   |
| 3단계   | 작가의 추상의식을 통해 공간성격과는 달리 공간의 자율성 부여, 예술적 정원의 탄생                                 |
| 4단계   | 초현실주의적 몽환적 이미지  |
| 추상 언어 | Metaphor, sensuality, 탈경계, inside and outsid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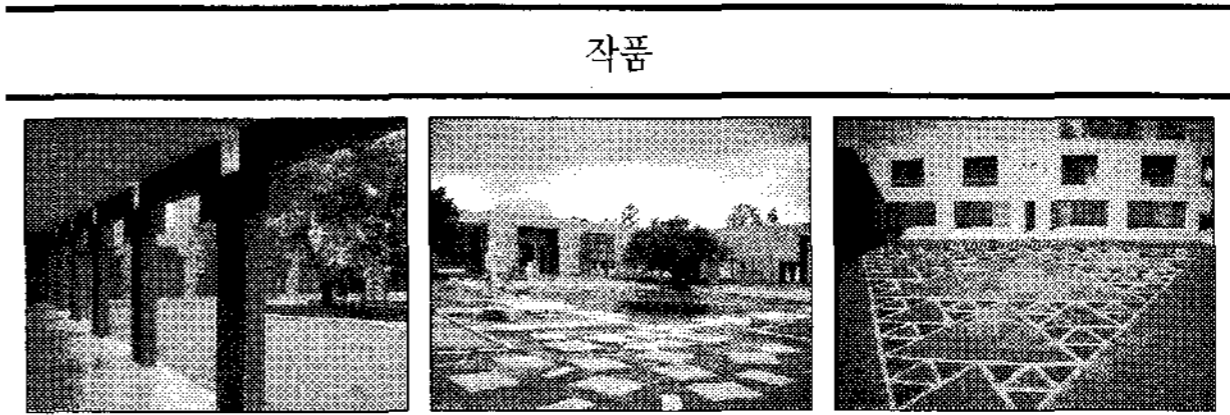
자료: www.insideoutside.nl: Pierluigi Nicolin & Francesco Repishti, Dictionary of Today's Landscape Designers

격 모두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또한, 복합적 추상조경에 있어서도 귀납적 추상성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연역적 추상에 더 가까운 복합적 추상조경과 연역적 추상성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귀납적 추상에 더 가까운 복합적 추상조경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연역적 복합 추상조경

대표작가로는 미국 국적의 캐더린 구스타프슨(Kathryn Gustafson, 1951)이 있다. 그녀의 정원디자인은 추상적이다. 그러나 심플하고, 조경의 역사나 개인적 기억을 담고 있으며 대지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녀의 선형적이며 실험적인 성향은 그녀만이 독특하게 가진 풍부한 미적 감성과 독창적으로 나타나는 공공조경 사이의 절묘한 결합에서 느낄 수 있다.

표 2. 찰스 코레아 추상작품



1998-92, IUCAA (Inter-University Centre for Astronomy and Astrophysics), Pune

|       |   |
|-------|---|
| 작품해설  | 연속적인 공간구성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 인도 과학의 전통과 세계문화의 통합을 표현하였다. 시각예술과 전체공간과 조화를 이룬다. |
| 구분    | 내용  |
| 1단계   | 추상작품  |
| 2단계   | 인도 전통과 현재의 통합을 주제로 하여 닫힌 구조 속에서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소재에서도 지역성을 띤다.               |
| 3단계   | 지역적, 시간적,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컨텍스트를 시도하였다.  |
| 4단계   | 데스틸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구성주의적이다.  |
| 추상 언어 | Metaphor, sensuality, 탈경계, inside and outside.                                |

자료: www.charlescorrea.net: Pierluigi Nicolin & Francesco Repishti, Dictionary of Today's Landscape Designers

표 3. 캐더린 구스타프슨 추상작품



1991, Shell Petroleum Headquarters, Paris,


|       |  |
|-------|--|
| 작품해설  | 조각적 형태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미니멀리즘적 형태의 구성과 6개의 작은 정원을 통해 다양한 꽃과 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
| 구분    | 내용   |
| 1단계   | 추상작품   |
| 2단계   | 열린 구조와 형태, 작가는 부지의 장소성을 중요시 여기며 공간과의 교감을 시도                            |
| 3단계   | 물, 나무, 암석, 대지와 관계, 조명=대지의 리듬감 물, 나무, 암석, 대지와 관계, 조명=대지의 리듬감            |
| 4단계   | 미니멀리즘적이며 대지예술적 성격  |
| 추상 언어 | Abstract, Simple, Memory, Harmony                                      |

자료: www.kathryngustafson.com: Pierluigi Nicolin & Francesco Repishti, Dictionary of Today's Landscape Designers

2) 귀납적 복합 추상조경

대표작가로는 스페인 국적의 칼로스 페라터(Carlos Ferrater)와 호세 루이스 카노사(Jose Luis Canosa)가 있다. 그들의

표 4. 칼로스 페라터와 호세 루이스 카노사 추상작품

| 작품   |  |
|--|--|
|  |  |
| 1995-1999, Botanical Garden Of Barcelona, Spain                                    |  |
| 작품해설   | 삼각형 형태의 반복은 지형적 이미지와 잘 어우러지며 강한 대비를 통해 공간의 독특함이 두드러진다. |
| 구분   | 내용   |
| 1단계  | 추상작품   |
| 2단계  | 삼각형 그리드, 지형적   |
| 3단계  | 이성적이고 인위적인 형태의 식재패턴                                    |
| 4단계  | 구성주의, 해체주의적이다  |
| 추상 언어  | Synchronizing Geometry, Topography, Context            |

자료: www.ferrater.com: Pierluigi Nicolin & Francesco Repishti, Dictionary of Today's Landscape Designers

대표작인 바르셀로나 식물원에서는 일반적인 식물패턴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삼각형의 그리드는 다양한 지형의 배경을 보여 주고, 등고선을 따라서 전체적 윤곽과 순환을 보여준다.

#### IV. 결론

조경은 미술의 양식변화에 동조하여 과거에도 유사한 양식 변화를 거쳐 왔으므로 현 시대에도 미술과 유사한 새로운 양식이 전개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욱, 2000). 그러므로, 현대의 모든 예술과 건축, 조경분야는 각각의 영역이 융복합되어 탈장르화되고, 하이브리드화되는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로 인해 어느 것이 예술이고 어느 것이 건축인지, 조경인지 구분하기 모호해지고 있으며, 건축가가 조경을 하고 예술가가 건축을 하며, 조경가가 도시계획과 건축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우리의 현대조경은 알 수 없는 텍스트(text)들과 기존의 도면, 스케치, 디자인이 아닌 변형되고 왜곡된 포토몽타주(photomontage), 다이어그램(diagram), 매핑(mapping)등 디지털이미지의 새로운 매체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물론 새로운 도구의 출현으로 인해 급변하는 현대예술이나 현대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과거 옴스테드식 픽처레스크 조경과는 판이하게 다른 난해하고 생경한 형태, 즉 추상조경이 생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모더니즘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대조경의 추상유형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다.

첫째, 추상의 개념과 추상성의 시작은 현대 또는 근대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존재하여 현재까지 발전되어오는 개념이다.

둘째, 최근의 작품들에서 나타난 조경의 추상성은 장르간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이브리드화되고 건축가, 예술가, 조경가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의해 추상예술작품 같은 현대조경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셋째, 현대조경의 추상유형은 연역적 추상조경과 귀납적 추상조경, 복합적 추상조경으로 구분된다. 또한, 복합적 추상조경을 세분화하면 귀납적 추상성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연역적 추상에 더 가까운 연역적 복합추상조경과 연역적 추상성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귀납적 추상에 더 가까운 귀납적 복합추상조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조경의 추상유형에 관한 연구는 추상작품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현대의 추상조경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미래의 조경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이의 근본이 되는 추상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 주 1. 콜리가 말하길, 미메시스(Imitation)의 의미뿐만 아니라 재현(Representation) 또는 표현(Expression)의 의미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메시스(Mimesis)가 모방(Imitation)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언어로는 포착해낼 수 없는 개념이다.
- 주 2. 노영덕(2004) 논문의 주요 논점은 연역적 표상과 귀납적 표상에 있다. 비록 그의 논문에서 밝힌 바는 연역적 표상과 귀납적 표상이지만 이는 결국 연역적 추상과 귀납적 추상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가 추상성에 관한 내용이므로 연역적 추상과 귀납적 추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논리의 전개상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연역적 추상과 귀납적 추상으로 구분한다.

#### 인용문헌

- 김정란(2005) 감상교육을 통한 미술비평 방법론의 교육적 함의(含意).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노영덕(2004) 예술의 비 모방적 속성에 대한 플로티누스적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욱(2000) 조경의 틈으로 들어온 현대미술. Locos2.
- 오병남(2003) 미학강의.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일영(2006) 현대조경설계에 있어서 하이브리드적 경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George Georgian(2004) Personal Communication, November 5, 1998, 김지연, 펠드만의 미술비평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Pierluigi Nicolin, Francesco Repishti(2003) Dictionary of Today's Landscape Designers. Skira.
- W. Kandinsky(1973) Über das Geistige in der Kunst. Bern. Benteli Verlag.
- 町田甲一(1986) 美術概論. 鄭充洛 역. 미술문화사.
- www.charlescorrea.net
- www.ferrater.com
- www.insideoutside.nl
- www.kathryngustafson.com